

특별기획

영장류자원지원센터 정읍 건립

총 185억원 투입... 약 3천마리 사육 규모로 내년 준공 예정



부안 유유누에마을 참뽕 축제위

나누미근농장학금 500만원 기탁

제2회 유유누에마을 참뽕축제에서 마련한 기금을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섭)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부안군 번산면 청정누에타운특구 내 유유누에마을 일원에서 개최된 제2회 유유누에마을 참뽕축제는 부안군 대표 특화 작목인 오디와 누에의 우수성을 알리려는 축제로 농산물직거래장터, 먹거리장터, 오디 파기·오디고형판만들기·오디청담기·뽕잎즉석볶음만들기 체험, 이벤트(누에3종올림픽·얼음오디빨리먹기·이색누에찾기·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자원봉사자, 경로당 순회봉사

김제시자원봉사자종합센터(센터장 정창섭)에서는 지난 8일 봉남면(동통경로당, 화암경로당, 평산경로당) 3개 경로당에서 '주물주물 효사랑'이라는 경로당 순회봉사를 진행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1회 진행되고 있는 '주물주물 효사랑'은 밤마지봉사단, 손마지봉사단, 지평산이혈사랑회, 네일아트봉사단 등 4팀의 전문봉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0여명의 봉사자들이 3개의 경로당으로 팀을 나누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훈)는 행복 애너지 이동행대차량을 지원하며, 등롱마을 홀몸 어르신 가정의 밀린 빨래감을 수거하고 세탁과 건조까지 이어지는 워시돌 세탁서비스를 해드려 큰 호응을 얻었다.

정창섭 센터장은 "어르신들이 마사지를 받으며 행복해 하시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원하는 곳이면 언제든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건강조사원 모집

김제시보건소 소장 박래만은 2016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사를 수행 할 조사원을 모집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주민의 건강 행태와 건강 관련 생활습관, 의료이용, 삶의 질 등을 조사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수행을 위한 보건통계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우리 김제시민의 건강수준과 건강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김제시의 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된다. 조사원 모집기간은 6월 9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6명이다.

대상은 김제시 거주자로 지역사회에 밝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조사원 모집 신청은 김제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조사원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여 직접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수성동 피크시간대 전기절약운동

수성동주민센터는 지난 8일 기반조직원, 정읍시그린리더협의회와 함께 여름철 '1417피크시간대 전기 덜 쓰기 범시민 거리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제일고 사거리에서 펼쳐진 캠페인에는 수성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배상호)와 마을부녀회(회장 선우정민), 정읍시그린리더협의회(회장 백인출), 주민센터 직원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피크시간대인 14시부터 17시까지 냉방운도 2도 이상 유지하기 ▲쿨(cool)맵시 옷차림하기 ▲대기 전력 차단하기 등 에너지 절약 실천방안과 구호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에 국가적 영장류 자원의 수급 문제 해결 및 안정적인 영장류 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영장류자원지원센터가 건립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장규태, 이하 생명연)은 김생기 시장과 유성업 국회의원, 이형규 전북도 정부부지사 등 9일 입암면 현지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영장류자원지원센터는 고품질 SPF(Specific Pathogen Free, 특정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 영장류 자원의 대량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총 185억원이 투입되고, 7만2천744㎡의 부지에 연면적 9천904㎡ 규모로 사육동 10동과 분관동 1동, 검역동 1

동과 부대시설을 갖추게 된다. 약 3천마리의 영장류 자원을 사육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2017년 준공될 예정이다.

생명연과 이에 따르면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영장류는 국가 재난형 전염병(메르스 등)과 신약 개발 및 뇌연구 등 전임상 연구의 필수 자원으로 국내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자원무기화(생산국 수출쿼터제, 나고이외정서) 및 항공수송 중단상태 등으로 수급상황이 악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 수급 문제 국외 영장류 시험 의뢰 시, 우수 연구 성과 및 산업 기술의 국외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기술유출보호 차원에서도 영장류는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미래전략 생물자원이다.

영장류자원지원센터는 이러한 국가

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차별 모체 영장류 자원을 도입하고 자체 대량 번식 체계를 구축해 영장류 자원 국산화를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3000마리 규모로 사육 및 운영돼 2021년 50마리 공급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국내 수요의 50%인 약 700마리를 국내 관련 기관에 공급할 예정이다.

영장류자원지원센터는 완공 후 ▲연차별 모체 영장류 도입을 통한 검역, 사육, 번식 및 운영 ▲고품질 SPF 영장류 사육 및 운영을 위한 헬스 모니터링 체계 확립 ▲대량사육 및 번식을 위한 체계적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관리운영절차) 확립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영장류 연구지원 인프라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통해 총동적인 자살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김제보건소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황산면 하목마을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

김제시보건소는 9일 황산면 진흥리 하목마을 회관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하고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 제막식 및 생명사랑에 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식 김제시장을 비롯하여 한국자살예방협회, 정신건강 관계기관,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생명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2015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조사에 따르면 김제시 관내 자살자 중 약물 및 농약음독이 전체 68%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관내 농약 음독에 따른 자

살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통해 총동적인 자살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까지 하목마을에 1,340만원 상당의 농약안전보관함 43개, 폐농약 용기수거함 1개가 배당 설치되었고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우울 검사도 실시하였다.

현판식 이후에는 김제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후관리 및 가구별 가정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번 방문은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된 22개 단체의 회장 및 회원 6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리 진행되었다.

김제시 - 경북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친선교류 '활짝'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순애)가 9일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를 공식 방문함으로써 본격적인 상호교류의 새로운 장을 활짝 열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 해 구미시 김제방문 시 상호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을 주 내용으로 한 MOU협약의 후속 조치로,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된 22개 단체의 회장 및 회원 6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리 진행되었다.

구미시는 김제시와 마찬가지로 여성

친화도시인 공통점을 갖고 있는 자매 도시이며 사회적 약자로 대변되는 여성을 비롯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모든 시민의 행복추구를 시장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

강순애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전라도와 경상도를 구분짓는 것은 이미 지나간 옛말이며, 서로 다른 환경과 지역에 거주할지라도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간에 보나 오는 발전된 모습을 배우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앞으로 큰 발전을 이루는 귀한 자양분이 될 것이며 귀한 결실로 맺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는 느티나무봉사단 등 22개의 봉사단체로 구성되어 지역의 곳곳에서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추진에 민관협력의 대표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쌀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

청정 해풍을 머금고 자라 최고의 품질과 맛을 자랑하는 명품 부안 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자체가 직접 지역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등록돼 상표법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부안군은 지난 2014년 10월 부안 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관리와 사업에 착수해 최근 특허청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 결정을 받았으며 이는 전국 최초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명품 쌀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한층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특산물 명칭(지리적 명칭)은 지역(부안)과 상품명(쌀)으로 구성돼 누구나 사용해야 할 용어이기 때문에 본래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지역특산물 명칭이 타 지역의 상품과 구별 되는 특징과 명성이 있고 이러한 특징과 명성이 해당 지역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법에 의한 등록허가가 가능하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는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생산자들이 규정한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단체원만이 원칙적으로 지역특산물 명칭을 사용하는 제도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방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병주 GIFT SET

- GIFT SET 1.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 750ml 1ea/12%
- GIFT SET 4.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 375ml 5ea/13%
- GIFT SET 6. 500ml 청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 375ml 2ea/13%

TEL : 083-584-9900
www.gansanwine.com